

'5·18 반세기 역사' 담는다... '50년사' 편찬

진상규명·학술 연구 성과 등 총망라
6개 분야 12권...2030년 공개 목표
기념재단·대학 교수 등 위원회 구성
"방대 자료 학술적 체계화 종합 저술"

5·18민주화운동과 그 이후 반세기 가까운 역사를 책으로 엮는 작업이 본격화 된다.
5·18기념재단은 6일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50년사 편찬' 사업의 방향 등을 소개했다.
총 12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은 1980년 5월

부터 현재까지 항쟁의 역사와 축적된 진상규명 성과, 학술 연구 결과를 총망라하며 의미와 가치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된다.
편찬 작업은 지난 3월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8월부터 사업 용역 공고에 나섰으며, 최근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5·18기념재단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 8명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는 김병인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추대됐다.
위원회는 편찬 작업 과정에서도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 등 진전 사항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하고 2029년부터 발간 작업에 들어가며 50주년인 2030년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구성은 ▲항쟁 이전 시대적 배경을 다룬 전사 ▲1980년 5월 항쟁 과정을 기록한 실록 ▲학생·노동·여성·청년 등 다양한 주체의 활동을 담은 운동사 ▲왜곡과 진실규명 과정 ▲지역공간과 도시 정체성 연구 ▲사진과 법령 등을 정리한 자료집 등 6개 분야·12권으로 계획됐다.
이를 통해 5·18의 전개 과정뿐만 아니라 왜곡 대응, 기억 공간, 법·제도, 인물과 기록물 등을 아우르는 종합 역사서를 만들겠다는 게 기념재단의 구상이다.
특히 전사 부분에선 1980년 5월 이전 한국사

회의 정치 상황과 군부 동향, 또다른 국가폭력 사태인 '사북 사건' 등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실록에선 광주 전역의 시위 전개와 국내·외 동향을 시간대별로 복원할 계획이다.
김병인 편찬위원장은 "항쟁 참여자들이 고령에 접어들 만큼 구술에만 의존하기보다 각종 자료와 기록을 교차 검증해 학계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역사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윤복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5·18과 관련한 자료는 매우 많았지만 이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한 종합 저술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세대가 참고할 수 있는 기록물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성기자

"조선대 새 이사장은 경영형 리더 선출해야"

김이수 이사장 6월30일 임기 만료
교수평의회 성명서... '내정설' 우려
선임과정 공개·거버넌스 등 요구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새로운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대학의 혁신과 생존을 책임질 경영형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평의회는 6일 "차기 이사장 선출은 조선대의 향후 100년을 좌우할 가장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이사장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대학의 재정과 발전 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경영형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평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영형 리더 선출 ▲이사장 및 이사 선임 과정 투명 공개 ▲재정 확보·수익사업·산학 협력 확대 구조 개편 ▲지역사회·동문·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 구축 등을 요구했다.
앞서 학교법인조선대학교는 오는 6월30일 김이수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교수평의회는 "이사장 선출은 어느 한 사람의 의중이나 인맥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며 "이사회는 낡은 틀을 넘어 지역사회와 동문, 학계, 기업계, 공공영역 등에서 능력과 식견, 공공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은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대학의 비전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평의회는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차기 이사장 내정설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특정 인사의 실명이 거론되는 현실은 대학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열망을 짓밟는 행태"라며 "우리 대학의 현실과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다 대학 교수 출신의 명망가형 인물에게 또 다시 대학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형식적인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와 헌신을 갖춘 인물, 대학의 상황을 경험하고 아픔과 가능성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선욱기자

광주·전남 1.2cm 크기 '짜락우박' 내리

6일 광주·전남 지역에 지름 1.2cm가량의 짜락우박과 함께 비가 내렸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전남 일일 누적 강수량은 광주 남구 11mm, 함평 10mm, 영광 8.5mm, 구례 6.5mm, 곡성 6mm, 나주 5.5mm, 화순 5mm 등으로 집계됐으며, 광주에 12회, 전남에 46회 낙뢰도 내리쳤다.
광주·전남에서 짜락우박 피해 신고 등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은 맑은 날씨가 예보됐으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최저·최고기온 분포는 2-6도, 11-15도로 전남보다 쌀쌀하겠다.
8일 곡성은 최저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질 가장 춥겠다. /서형우기자



비바람에 벌써 '벚꽃 엔딩' 지난 주말에 이어 또 다시 비가 내리면서 만개한 벚꽃이 바닥을 뒤덮었다. 6일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벚꽃길을 찾은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비바람에 떨어지는 '벚꽃 엔딩'을 보며 아쉬워하고 있다. /조영권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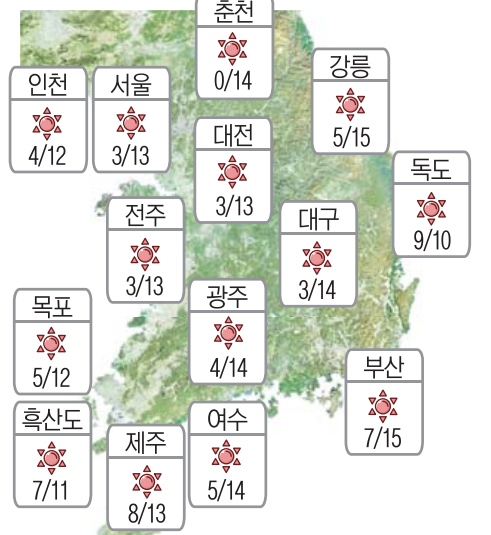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2 해질 18:58 달돋음 --- 달질 08:45

●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4/14	장성	맑음	3/13
목포	맑음	5/12	보성	맑음	3/13
여수	맑음	5/14	함평	맑음	3/12
나주	맑음	3/13	순천	맑음	5/15
완도	맑음	4/14	영광	맑음	4/12
구례	맑음	3/14	진도	맑음	6/13
강진	맑음	3/13	흑산도	맑음	7/11
해남	맑음	4/13	고흥	맑음	5/15
광양	맑음	3/15	담양	맑음	2/13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0	0.5-0.5
남부	면바다(북) 0.5-1.5	0.5-1.5
	면바다(남) 0.5-1.5	0.5-1.5
남해	앞바다 0.5-1.0	0.5-1.0
서부	면바다(동) 1.0-2.0	0.5-1.5
	면바다(서) 1.0-2.5	1.0-2.0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5:10	10:17	여수	11:32	05:42	00:21	06:49
	16:54	22:11	---	17:30	12:09	18:22	

●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60 **세차 6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60 **운동 50**
 실외건조 좋아요 운동 후 체온 유의

● 주간 날씨

8일(수)	9일(목)	10일(금)
☀(2/18)	☁(7/17)	☀(12/18)
구름조금	구름비	맑음
11일(토)	12일(일)	13일(월)
☀(9/21)	☀(9/22)	☀(10/22)
구름조금	구름조금	구름조금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넉넉한 정과 인심이 넘치는

쿨비골영광시장, 영광터미널시장, 영광고추특화시장

◎ 장이 서는 날 ◎

쿨비골영광시장	상설시장	영광읍 중앙로3길 5-22 일원	06:00~20:00	채소류, 생선류 및 일용품 등
영광터미널시장	상설시장	영광읍 신남로3길 5-3 일원	06:00~20:00	채소류, 생선류 및 일용품 등
영광고추특화시장	상설시장	영광읍 신남로 100-25 일원	06:00~20:00	고추, 마늘 등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영광군** 광고문의 : 062)650-2099